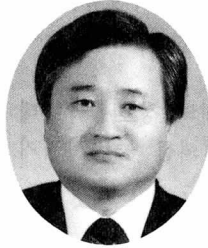


무인 사료공장 자동화 시스템 국산화



전 생산공정을 완전하게 자동·운영관리할 수 있는 무인공장자동화시스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산화돼 공장자동화(FA)를 촉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금성소프트웨어(대표: 黃七鳳)는 지난달 22일 컴

퓨터를 이용, 사료원료의 투입에서부터 약품처리까지, 가공, 포장 및 출하에 이르는 전생산공정을 무인자동화한 사료공장자동시스템을 국산화 하는데 성공했다.

금성소프트웨어는 그동안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유수의 공장자동화 시스템 업체들이 각축을 벌려온 (주)삼양사 천안공장의 시스템 공급권을 따내고 첫 설치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가상승압박을 받고 있는 사료업계의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종래의 부분적 자동화에 탈피, 호스트컴퓨터인 슈퍼마이크로컴퓨터에 퍼스널컴퓨터급의 산업용컴퓨터를 연결하고 이들 컴퓨터에 각 기계장비의 콘트롤러를 접속시킴으로써 컴퓨터중앙전산실의 오퍼레이터가 컬러모니터를 보면서 전생산공정을 파악, 완벽한 현장 감시 및 통합관리가 가능한 첨단시스템으로 자동으로 하역된 사료원료를 종류별로 각각의 사일로(원료배합 등)로 이동시켜 호스트컴퓨터로부터 지시된 배합공식에 따라 각 사료제품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가공출하한다는 것이다.

금성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쉽게 작동할 수 있게 사료제품 종류별로 각각의 사료 특성에 맞도록 제조할 수 있는 200여가지 배합방식을 컴퓨터에 준비해 놓고 각 제품에 해당하는 방식을 컴퓨터를 통해 지시하면 그 방식에 따라 사료가 자동으로 가공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

산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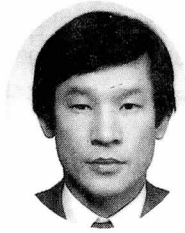
사

료

이밖에도 금성소프트웨어는 세계 정보통신 전문회사인 미국 LGS(Lockwood Greene Systems) 최첨단 공장자동화 시스템인 통합생산관리시스템(CIM: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을 국내 독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본격 공급에 나섰다

콤텍시스템

대우증권에 Non-Stop 온·라인망 구축



(주)콤텍시스템(대표: 남錫祐)은 5월말 대우증권 주식회사에 각종 데이터 통신망을 본점에서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는망관리시스템(NMS: Network Management System)과 다기능 다중

화장비 및 Intelligent Modem 등 종합 Network System을 공급 설치완료했다.

이법 (주)콤텍시스템이 설치한 종합 Network System은 회선고장과 장비고장 발생시 자동 스위치 기능으로 전천후 동작이 가능하며, 엄격한 품질관리 및 장비의 Back-up 기능을 보유하여 안정성이 보장됨으로써 회선비용의 대폭적인 절감 및 단말기증설이나 확장시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망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모뎀, 회선, 다중화장치 패킷시스템 등 Network 전반에 관련된 통신장비들을 그래프 및 데이터로 한눈에 파악,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우증권에는 언제라도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체 지점 전산업무도 온-라인 장애없이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더한층 높일 수 있게 됐으며, 타 증권회사보다 더욱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데이터시스템

부품자동창고시스템 개발



삼성데이터시스템(株)(대표: 林慶春)은 A/S부품 자동창고시스템을 개발하여 삼성전자의 해외 A/S 부문 부품자동창고에 설치완료하였다. 부품창고로는 국내 최대인 삼성전자의 해외 A/S부문 자동창고에 설치된 본 시스템은

과거 자동창고시스템이 모두 제품위주의 관리시스템인데 반해 부품자동창고시스템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SDS가 개발해낸 해외 A/S부품 자동창고시스템은 본사의 주전산기와 ON LINE으로 연결되어 수불업무가 처리되며 BUCKET 및 PALLET TYPE의 자동운용과 수동창고관리를 병행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크게 부품의 입고, 출고, 조회, 재고관리시스템 등 10개의 SUB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고수량 조정에서부터 출고실행까지 무인창고로 운용된다.

한글 전자사서함, 신상품 개발



쌍용컴퓨터(대표 崔丙恒)는 최근 문서, 메모 등과 같은 각종 메시지를 컴퓨터로 작성, 원하는 목적지와 송수신 할 수 있는 한글전자사서함인 'CEMESS-11'의 기능을 대폭 추가, 보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대화식 메시지송수신기능과 자체 내장된 편집기능외에도 각종 광고내용을 컴퓨터에 입력,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시판 기능'과 수신된 모든 문서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알려주는 기능 등이 추가됐다. 특히 게시판 기능은 각종 광고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알려주는 기능과 함께 관리부서가 각종 광고의 게시여부를 승인, 점검하는 기능도 내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반응시간이 매우 늦었음에 비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현황을 관리부서에서만 볼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 프로그램 논리개선을 통해 시스템의 반응시간을 줄였다. 그러나 시스템 관리자만은 모든 메시지의 송수신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쌍용컴퓨터는 최근 광주의 창업상호신용금고와 자체개발 신용금고종합관리시스템인 SAM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창업상호신용금고는 여수신관리와 같은 창구업무로 부터 고객관리, 인사급여관리, 경영정보관리와 같은 일반관리업무에 이르기까지 제반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편집후기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정보문화의 달 기념행사가 체신부를 중심으로 각 단체, 학회와 통신사업자 주최로 6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진다. 고도정보화 사회를 조기에 구현하고 정보문화의 마인드 확산이 중요한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정보를 쉽게 접하고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사회풍토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각 행사가 성황리에 끝날 것으로 낙관해 본다.

이들간 열렸던 통신시장 개방계획 설명 및 토론회는 진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의 한마당이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내시장의 조기개방과 앞으로 미국과 협상할 전략마련을 위해 업계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고 업계 측에서는 대내개방 시기와 정보통신사업 체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정부와 업계간 신뢰가 점차 높아지고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가 고조돼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산·관의 점증하는 유대강화현상을 지켜보며 정보통신산업의 미래를 장비빛깔로 전망해 보는 것이 지나친 낙관일까?

지난해 6개월여 동안 활발한 토론을 벌여온 전산망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확정 공포됐다. 입법예고 이후 공포되기까지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이같은 결실을 맺게되었다. 업계의 자발적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 본다.